



2025년 2월 2일(제1232호) 주님 봉헌 축일(복싱 생활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2011년에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성당에 모이면,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신입생은 맨 뒤에 앉고 학년이 높아지면 더 앞자리에 앉게 되는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맨 앞에 있는 부제님들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저도 빨리 수단을 입고 싶고 독서직과 시종직을 받아서 부제가 되고 신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때에 벽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배들에게 인사하며 겸손하고 기쁘게 생활했습니다. 신부가 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처음 그때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존재를 찾으며 기도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의 시메온은 자신의 생애를 주님에게 집중해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온 사람, 긴 시간 속에서 하느님을 향한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하느님의 존재로부터 시작된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향하여 몸을 향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만 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기다림”

우리는 답답하고 불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찾는 신앙인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나 자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열정을 불어 넣으시는 주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시메온이 노년에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어떠한 처지일까요? 우리들은 10년 후 어떤 사람일까요? 그 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시메온이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마침내 만났듯이, 우리는 하느님의 존재에 가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들이 삶의 마지막 때에 하느님의 모습을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하느님을 찾는 어떠한 성숙한 삶의 태도를 마지막에 지니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성대 성당 앞에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나 무엇을 하겠습니까?’라고 쓰여 있는 비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느님을 떠나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메온처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갑시다.



오준혁(벨리아) 신부
은성대(공군 제19진투부행단) 상당 주임

제 1 특 시

말라 3,1-4

회 답 송

◎ 만군의 주님, 그분이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 2 특 시

히브 2,14-18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그리스도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시네. ◎

복 음

루카 2,22-40

영 성 제 송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모든 민족들 앞에 마련하신 구원을 보았나이다.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1. 이순이(李順伊) 루갈다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이 세상에서는 잠깐 부부가 되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성인의 반열에 올라,
모자·형제·남매·부부가 영원한 세상에서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죽은 후에라도 전주(全州) 소식이나 발길을 끊지 말고,
제가 있던 때처럼 하십시오.

이 딸자식이 여기에 온 후, 저희가 평소에 근심하던 일이 생길 뻔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맹세하여 사 년을 친남매 같이 지내는 도중에
구월에서 시월 사이에 십여 차례의 유혹에 빠질 뻔하다가,
주님의 성혈공로¹⁾를 일컬으면서 능히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저의 일을 답답히 여기실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니,
저를 본 듯 이 편지를 반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계속>

1) 성혈공로(聖血功勞) :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이룩한 구원의 공로.

『동정부부 순교자 복자 이순이 루갈다 옥중편지』 발췌, 진주교구 치명지신상지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집중

계산할 것 없이
하나에 집중해야 한다.

은 힘을 다해
나를 던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시선을 두고,

다음은 없으니.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묵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주님 봉헌



시몽 뷔에(Simon Vouet, 1590-1649) / 1640년경 作 캔버스 위 유화, 393x250cm / 루브르 미술관, 프랑스 파리

로마에서 교육을 받고 이미 성공한 화가였던 사이몽 뷔에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루이 13세 궁정의 인정을 받아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고, 이 작품도 프랑스를 당대 유럽 최강국의 위치로 올려놓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리슐리에 추기경이 주문한 작품이다. 길이가 약 4m에 달하는 대형 작품으로 인물들은 거의 등신상 크기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성경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모님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제를 충실히 묘사하였는데, 등장인물들은 성전의 한편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며, 중앙에 앞이 안 보이는 시메온이 오늘 복음처럼 아기 예수님을 받아안고 하느님께 찬미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희생제물인 비둘기 한 쌍이 작은 우리 안에 들어있다)이 그 옆에 있고, 그 뒤에 아마도 한나로 추측되는 다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인이 보인다. 그 외 다양한 나이와 계층의 인물들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떤 이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희생제물로 바쳐질 동물(염소인 듯하다)도 계단에 보인다. 이 순간의 중요성 및 신성함을 기념하듯이 두 천사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 보고 있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이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장해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리날 것입니다.” (루카 2,34-35)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심을 위한 미사 - 주님 봉헌 축일: 무열대 김영태 신부

◆ 교구장 동정

- 선봉대(지작사) 성당 사목방문
 때: 2월 2일(주일)
- 주교회의 선교사목주교위원회
 때·곳: 2월 5일(수) 14:00, CBCK

◆ ‘군중의 시간’ 인니

-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신앙 회복과 성장을 위한 각진성사의 해” - “상량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1,8)